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3년
2024년 11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8년 제 300 호

총기 53년 제103회 추계 강공회 개최

10월 22~24일 총지사, 열반 스승 추선 불사 봉행



제103회 추계 강공회가 열린 가운데 종령 지성 예하가 스승들 앞에서 강훈을 하고 있다.

총기 53년 제103회 추계 강공회가 10월 23일 오전 종조 참배대례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양일간 본산 총지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공회는 종령 지성 예하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강공회로 전국 스승 50여 명이 참석해 수행을 점검하고, 승단의 주요 의사 결정과 종령 강훈, 일반 교육 등이 실시됐다. 아울러 선대 열반 스승들의 왕생성불을 발원하는 추선불사도 봉행됐다.

강공회에 앞서 전날인 22일에는 제 209회 원의회 및 제139회 재단이사회 합동회의가 오전 11시부터 통리원 부장실에서 열렸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원의원 및 총지중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총기 53년 추경 및 54년 예산 심의를 마쳤으며, 원안대로 결의됐다. 또 이 자리에서 스승들의 촉탁 심의가 이루어졌다.

2면으로 이어짐

‘즉신성불의 영원한 도반으로 한평생’

기로 스승, 울진 일대에서 관불 성료



가을을 맞아 오랜만에 나선 기로 스승들이 밝은 모습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교수행의 전범 아사리로서 종단 발전과 중생 교화라는 대사명을 잊지 않고 한평생 용맹정진해 온 기로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즉신성불의 영원한 도반으로서 수행을 점검하고 법언을 다졌다.

종령 지성 대종사를 비롯한 15명의 기로 스승은 울진 덕구온천호텔에 여장을 풀고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의 관불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통리원 사무국장 남해 정사와 교무 10여 명이 길잡이 역할을 했으며, 참석 스승들은 기간 내내 종단의 어른으로서 모범적인 수행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기로 스승들은 울진 일대를 돌며 장소와 때의 구분 없이 가는 곳이 불공처, 머무르는 곳이 도량임을 확인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과 마음이 뽕 뚫리는 푸른 산과 망망대해의 동해를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타고 한눈에 보면서 자연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 관불 후에는 대온천장이 마련된 호텔에서 마음의 평온과 신심의 여유를 달래기도 했다.

저녁 공양 후에는 자리를 함께하며, 덕행을 더욱 갈고 닦아 모범되는 선배 스승으로 거듭날 것과 종단의 발전, 승단의 화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종령 지성 대종사는 스승들과의 자리에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늘 스승님들의 수행 공덕이 종단이 발전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면서 “후배들이 안심하고 총지중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교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늘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건승을 기원했다.

“세계평화와 인류 안녕 위해 더욱 노력하자”



제2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 일본대회에서 왼쪽부터 법선, 도우, 우인, 룡경, 법일 정사

불교 교류를 통한 한·중·일 삼국 불교계의 우호 증진과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일본대회가 10월 29일, 30일 양일간 야마나시현 일원에서 개최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이사장: 다케 가쿠초 스님)는 첫날인 29일 삼국 국제교류위원회의, 30일 오전 야마나시현 일련종 총본산 쿠온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일본대회 성료

지(久遠寺) 본당에서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일본대회 본행사인 세계 평화 기원 법회와 국제 학술 강연회에 이어 오후 6시 하이랜드 리조트호텔에서 축하 만찬을 마지막으로 전 일정을 마쳤다.

한·중·일 삼국 불교도들은 “불법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맞는 형태로 사람들 마음에 다가서고, 세계 평화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선언한다.”며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이에 앞서 열린 ‘공영사회 구축에 있어서 불교 정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 국제 학

술 강연회에서 한국 대표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우인 정사는 “‘공영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공생’이라고 강조하고, “공생의 궁극은 남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며,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공존의 무대에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대표단으로 종단에서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 총무부장 룡경 정사, 사감원장 법일 정사, 법선사 주교 법선 정사, 실지사 주교 서강 정사, 자석사 주교 도우 정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류 30주년을 맞는 2025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25차 대회를 기약하며 폐회했다.

중/조/법/어

무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 고통 속에서 안락을 찾는 것, 이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지면안내

2면 추계 강공회 화보
3면 지혜의 눈 - 잡화엄식

9면 역삼한담 - 지성으로 정진하는 삶
10면 총지로 여는 삶 - 실새삼의 더부살이

교훈 앞날의 지도자가 되자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동해인!

총림 동해중학교 개교 57주년

1967년 11월 27일 설립

총지중 총림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명륜동) Tel.051:555:4456



제103회 추계 강공회 공식불공이 강공회 첫날인 23일 오전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했다.

“같은 계율을 지키며, 남의 뜻을 존중하라”

1면에서 이어짐

묘심해 전수, 도우 정사가 3년(총기 54년 1월 1일-총기 56년 12월 31일), 원만원 전수, 법우 정사, 우인 정사, 보명심 전수, 도관 정사가 2년(총기 54년 1월 1일-총기 55년 12월 31일)으로 원안대로 통과 됐다.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제169회 중앙종회의가 통리원 반야실에서 개최됐다. 중앙종회의 의장 법상인 전수를 비롯한 종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진행된 합동회의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승인했다. 또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계중학교 감사 지현 전수의 오는 12월 20일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 감사 선임 건은 지현 전수의 연임으로 가결됐다.

이번 강공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불공은 오전 10시부터 금강륜 전수(성화사 주교)의 집공으로 봉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금강륜 전수의 ‘스승의 시간’이라는 주제의 설법도 함께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

종령 지성 예하의 강훈은 공식불공 후부터 오전 내내 진행됐다. 종령 예하는 『육

화경』을 인용해 ‘화합하는 여섯 가지 법’을 설하며, △같은 계율을 지키며, △의견을 같이 맞추고, △받은 공양을 똑같이 수용하며,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산다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며, △남의 뜻을 존중하라 일했다. 특히 ‘한 장소에 모여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여 서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하여 설명했다. 아울러 종조님의 정법유훈과 스승의 복무자세 그리고 총기 39년 추계강공회를 복기하며, 새로운 종풍운동에 대한 의미를 되살렸다.

점심 공양 후 진행된 스승 교육은 ‘어떻게 관점의 차이를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강 정사가 강의했다. 교육에서 서강 정사는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차이를 ‘음과 양’,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 등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안내하며,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 상처를 받는 과정 또한 다르지 않을까?, 서양인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진 심리학은 동양인의 심리치료에 얼마만큼 효과적일까? 등의 의제로 대중을 상대로 한 교화 일선에서 스승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

을 제시했다.

스승 간의 수행을 점검하고 종단 안팎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강공회의 꽃’ 승단 총회는 전국 기로 스승, 현직 스승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 30분부터 저녁 공양 전까지 장시간 이어졌다. 이번 제154회 승단총회에서는 먼저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종단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종령 지성 예하를 위시하여 승단 화합이 강조되었으며, 승단의 나아갈 바, 교화와 종단 발전 방향에 대한 스승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강공회 둘째 날인 23일 오전 공식 불공은 시범사 주교 혜광 정사의 집공과 설법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 자리에서는 한평생 진언행자로 밀법전수와 교화발전이라는 사명으로 수행정진하다 입적에 든 종조 원정 대성사를 비롯한 열반 스승 사십 네 분 영식의 왕생성불을 발원하는 추선불사가 스승을 비롯한 유가족,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으며, 이를 마지막으로 제103회 강공회는 막을 내렸다. 총지사=박재원 기자



①선대 열반 스승 추선불사 봉행 ②‘강공회의 꽃’ 승단 총회 ③중앙종회의의 영화미소 개최 ④스승교육에 열강중인 서강 정사 ⑤ 매 순간마다 강공회에 정진하는 스승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제103회 추계 강공회/설법

스승의 시간

성화사 주교 금강륜 전수

반갑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덥고 견디기 힘든 날이 많았지만, 어느 틈에 아침저녁 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의 계절마다 색깔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고통과 장애를 뛰어넘고 극복하기 위한 수행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령님을 비롯한 원로 스승님들, 그리고 수행과 교화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스승님의 얼굴을 보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서야 할 자리지만 스승님들 앞에 서니 떨리는 마음이 간담치 않습니다.

그동안 저의 교화 경험으로 보면 가정에 아픔이 많은 윗대 조상님이 우리나라 그 자손들에게 알아달라는 인연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고통을 줄까, 왜 이 아픔을 줄까, 왜 이리도 괴로워해야 할까. 우리는 그 아픔으로 고통받는 마음과 비록 고통을 다 헤쳐나가지 못하더라도 원인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과의 법을 깨달아 원망이나 남을 탓하기보다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자기의 인연복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기나긴 세월 보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보살이 마지막 회향하는 순간까지 장애와 애환을 이겨내도록 마음의 고통과 원망과 미움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기 위해 정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승님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승의 인연을 주신 삶과 이 인연의 소중한 과를 이번 생애에는 반드시 풀어가야 할 숙제로 삼고 수행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인연으로 스승의 집안에서 자랐고, 스승의 길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았기에 스승의 길을 걷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살의 길을 걷는 시가와 스승의 길을 걷는 친가의 님은 공덕으로 결국 이 길에 들었습니다. 각자님도 스승의 길을 약속하였지만 결국 나름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도와준 가족들의 지지와 고마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승이 된 것이 제 일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고, 부처님 마음으로 이 인연을 갚아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 스승의 길, 현재 성화사에서 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매주 수요 정진을 하게 되었는데, 올 연말이면 3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든지 보살님들의 신심에 따라 하려고 합니다. 보살님들 중에는 역지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때 일어난 서원으로 마냥 지나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시간만큼은 불공에 동참하게 되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습니다. 매일 오신 분이냐 주중에 한번 나오시는 분들도 수요일에 한 번 더 참석해 동참 불공을 하니 독송과 노래에 더욱 간절함이 깃드는 축원이 행해지는 듯합니다. 저 역시 불공에 더욱 정성이 담기는 시간이어서 보살님들 덕분에 복을 지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화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강륜 전수

보살님들의 신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지종도 이 시대에 많은 대중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분과 다 같이 신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사원에서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특히 큰 사원 보살님들이 조금이라도 계실 때 주 1회나 한 달에 두 번 정도 총지종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스승님들도 각자 사원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봉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으로 와서 보니 나의 모든 나쁜 업을 벗기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스승님들도 정말로 복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승님들도 운명을 뛰어넘기 위해 고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승으로서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로에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지만 남은 스승의 시간을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성도합니다.

지혜의 눈

잡화엄식(雜華嚴飾)

화엄은 서로 어우러지는 조화의 모습 '어우러짐'은 불교 용어로 연기(緣起)

종교적 공간은 성스러운 곳으로 수많은 종교적 상징물로 장식한다. 한옥에서는 방과 대청마루의 윗부분이 다르게 조성되었다. 한옥에서 방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공간으로 앉아 있는 어깨 위 공간으로 한 길 높이 정도를 더한 여유를 두었고, 대청마루는 드나들 때 서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어깨 위 한 길 정도 높이를 두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직접 보이는 형태가 바로 '천장(天障)'으로, 하늘을 막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든 것이다.

방의 윗부분을 평평하게 마감한 것을 반자(甍子)라고 한다. 서까래를 가려서 평평하게 만드는 시설이다. 오늘날 아파트에는 천장이 곧 반자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으니 전통 한옥의 방과 대청의 윗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복잡한 건축상의 용어는 비껴가고 사찰의 경우 천장을 천정(天井)이라고도 한다. 우물 정자를 썼는데 종교적 의미로는 하늘로 향하는 통로로 이해하면 좋겠다. 당연히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다. 이를 '화엄(華嚴)의 꽃'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나름 수긍되는 면이 있다.

종교적 시설물에서 천장에 화려한 벽화를 그려 넣어 많은 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온 것으로 이탈리아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가 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화인데 '성경'의 창세기 내용이라고 한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는 크기가 41.2×13.2m에 이르는 거대한 그림으로 하이 르네상스(High Renaissance) 시기인 1508년에서 1512년에 걸쳐 제작되었다. 천장 끝으로 내려지는 벽 정면에 보

이는 벽화가 '최후의 심판'이다. 미켈란젤로는 하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나 라파엘로보다 더 오래 살았다. 대개 하이 르네상스를 1490년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때를 시점으로 삼고, 1527년 로마가 파괴된 때를 종점으로 삼는다. 레오나르도와 라파엘로는 1519년과 1520년에 각각 죽는데, 미켈란젤로는 1527년 사코 디 로마가 일어난 이후에도 활동하여, 1536년에서 1541년에 걸쳐 '최후의 심판'을 같은 성당의 제단 벽화로 그렸다.

조선시대 사찰의 전각을 세우고 장식하고 불화를 그린 사람을 편수(片手)라고 불렀다.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지만, 조선에서 승려는 천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그 미세한 공정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감탄스럽다. 화엄(華嚴)이란 온갖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한다는 뜻의 '잡화엄식(雜華嚴飾)'에서 나온 말이다. 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뜻하는 것으로, 화엄은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상징한다.

'어우러진다'는 것은 불교 용어로 말한다면 '연기(緣起)'이고, 그 양상은 하나의 작은 티끌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모든 티끌이 모두 이와 같다.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亦含十方)', 일체진중역시(一切塵中亦如是)'라는 말로 표현한다. 말하자면 불교의 우주관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의 기독교적 우주관인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과 대비된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화령 정사의 담배바다 토크보기

존경받는 삶

화려한 수레도 낡아 부서지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허물어져 간다.
그러나 진리와 덕행은 무너지지 않고
선한 이들과 서로 전한다.

나이 들어서도 내면은 가꾸지 않고 외모만 승부하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서 빛나는 것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훌륭한 인품과 젊음이 가 넘어서기 어려운 풍부한 경험, 그리고 후학을 이끌어줄 빛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것이 갖추어져야 어디 가서든 노인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분절하고 겉모습을 꾸민들 젊음의 그 싱싱함에 어찌 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불법의 그늘 아래에서 끊임없는 자신을 성찰하고 지혜를 기르십시오. 그것만이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길입니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설집』

수행은 우리의 본분이자 생존

제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3절 각종 논설(各種 論說)

1. 두 개의 생명(生命)과 수행(修行) 識인 제이의 생명과 육체적인 제이의 생 불(佛)과 인간과 동물, 이 가운데 인간 명,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우리는 아껴서 할 것인가.

인간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그래서 현명(賢明)한 사람은 그만큼 그의 생애(生涯)에서 시행착오(施行錯誤)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의 신앙(信仰)도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고(確固)해진다. 허다한 난관(難關)과 시련(試鍊)을 거쳐서 진리를 체득(體得)한다. 인간이 행복해지면 오욕(五欲)만 높 아질 뿐이지 진리(真理)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오욕을 떠나서 고행을 하는 것이다. 진리는 무궁하고 수행은 무한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미완성(未 完成)으로 죽는 것이다. 현실적(現實的)인 면이나 진리적인 면이나 모두 미완성(集團的)으로 여겨가는 사실이 역사인 것이다.

동물적인 인간을 다루기 위해서는 법 율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든, 즉 나쁜 일은 모두 하지 말자는 사회적인 공동계약서(共同契約書)다. 그러나 이 계약을 위반(違反)하는 자가 많다. 그러나 진실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 법 틀이 없어도 관계없이 스스로의 규범(規 範)을 정하여 자제(自制)하며 수행한다. 이것이 곧 정계바라밀(淨戒波羅蜜)인 것이다.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원천(源泉)인 범죄(犯罪)만 하게 된다. 아뢰야시(阿賴耶)

한창 꿈 많고 희망이 넘었던 20대에는 세상이 모두 고통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궁극의 목표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다시는 나고 죽는 일이 없는 열반이라는 말씀에 공감하지 못했다. 삼악도는 당연히 가고 싶지 않고 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 믿었고, 지금 사는 인간 세상은 살만하다 싶었다.

그때는 괴로운 일보다는 즐겁고 재미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유복하지 않았지만 크게 불행하다 느끼지 않았고, 가진 재주가 별로 없어도 그다지 불안하지 않았다. 30~40대로 넘어가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했다. 내 뜻과 무관하게, 나의 노력이 무색하게, 인생의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허우적했다. 일체개고(一切皆苦)이고 인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바세계라는 말씀이 피부로 와닿았다.

물론 부처님께서 삼법인(三法印)과 사성제(四聖諦)에서 고를 강조한 것은 즐거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괴로움이 아니라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영원한 행복에 대비되는 개념이겠지만 그냥 두루 두루 괴롭고 힘들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넘어 끄트머리를 향해 내달리는 나이 앞에 서니 인간 세상은 고(苦)와 낙(樂)이 얽히락뒤치락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겠다. 양적으로 반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손바닥의 앞뒤처럼, 빛과 그림자처럼, 양면적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궁극의 행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즐거움이라 여기는 것들이 괴로움의 이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을 낳고 기르며 기쁜 일도 많지만 그만큼 고되고 아픈 일들이 있게 마련이고, 가지면 갖는 만큼 오르면 오르는 만큼 시달리는 일도 따른다. 괴로움 역시 그렇다. 난관과 역경이 성장과 도약의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량을 길러주기도 한다. 항

상 좋은 것도 없고 늘 나쁜 것도 없다. 좋고 나쁜 것은 수시로 뒤바뀌게 마련이다. 행운의 신 공덕천과 불행의 신 흑암천은 언제나 함께 찾아오는 손님이다.

고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 가운데 하나가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이다.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비슷한 상담 제목을 골라 보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보기가 꺼려진다. 너무나도 직설적인 스님의 솔루션을 감당할 힘이 없어 그런 것 같다. 절망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무섭고 아프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괴로움에 허덕일 때는 수행할 마음을 내지 못하게 마련이다.

곤궁하고 심란할 때 취재자 한 사찰에 가게 되었다. 부처님의 원음 그대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여법한 수행도량이었다. 신도들을 인터뷰하니 하나같이 신심과 환희심이 넘쳤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공부하는 기쁨을 쏟아내며 더 늦기 전에 마음공부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존경스러웠다. 사는 게 여유로워 이렇게 먼 곳까지 공부하러 다니고 며칠씩 척척 집중 수행을 하는 게 내심 부러웠다. 솔직히 좀 속상하고 샘도 났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상으로 틈이 생기고 부터 매월 다리니 108독 기도법회에 동참한 적이 있다. 가슴이 벅차다고 할 정도로 행복했다. 중간중간 몸도 아프고 속 시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이겨내며 수행하려 애쓰는 스스로가 대견했다. 세상의 풍파가 그 정도에서 잦아든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내내 기쁜 마음으로 다녔지만, 사정이 생겨 지금은 잠시 중단했다.

반대로 걱정거리 하나 없는 이라면 굳이 종교를 가까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대인이 차츰 종교에서 멀어지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성에 기인하는 면도 있겠지만 굶주림과 재해에서 많은

부분 벗어나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이 많아 천상에 난 이들은 너무나 안락해 수행할 마음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 전생에 지은 복이 다하면 다시 윤회해야 하는데 천상에서 복을 누리느라 새로운 복을 짓지 못했으니,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는 고통이 극심하고 하루하루 생존에 허덕이느라 복을 짓기는커녕 수행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삼선도의 하나인 수라 세상은 화내고 싸우느라 자신을 살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있을 때 공덕을 쌓고 성불 인연을 맺으라 했으리라.

우리의 삶이란 외나무다리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삼악도에 떨어지기 십상이다. 서로를 짓밟고 괴롭히는 건 지옥 못지않고,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경쟁하는 건 아귀 다툼 그 자체이다.

첨단의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지혜롭고 성숙한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매달리고 집착할 땐 나이고 확신이고 소용없이 어리석게 군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꿈고 바른 마음자리를 가꾸고 키워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타락하는 건 금방이다.

대성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성불도 할 수 있고 삼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는 분기점에 서 있다. 인간의 몸을 받고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널빤지를 만나고, 광활한 대지에서 실오라기 하나가 바늘귀에 꽂히는 정도로 희유한 일이다. 이생에서 진리와 멀어지면 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우니 정신 바짝 차릴 일이다. 다음 생을 생각하면 수행은 우리의 본분이자 생존이다.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행복을 위해 접시를 깨어보자!

가끔 우리는 행복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하고 되물어 볼 때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있어도 스스로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은 축복을 바라며 행복하길 원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 찾는 나그네라 했던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꿈꾸고, 산 너머 행복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끝없이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도 끝내 행복을 찾지 못하고 만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행복할지 불행할지를 모르고 산다. 세상만사가 새옹지마(塞翁之馬)라 인생의 길흉화복을 알 수 없는 것이라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불행과 행복은 모두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나 자신의 행복을 알아보려면 우선 자신의 주변 인연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가령 내가 만난 부모의 인생과 삶을 살펴보고, 자기의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시부모, 며느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형제자매, 그들의 인생과 삶 그리고 죽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인연이요, 자신의 인연 따라 생긴 것이니 자신의 행복도 그 인연 속에 나타나게 된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란 결코 없는 것이요, 혼자만을 위한 행복이란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런데 중생의 바람과는 달리 중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재난과 장애다. 이 재난과 장애가 있는 한 중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재물이 아무리 많고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재난과 장애 앞에서 중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 재난과 장애의 괴로움과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모두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기는 것으로서 탐욕과 증오로 가득찬 우리 자신에서 생기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바른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심)이나, 두려워하는 공포심도 모두 자

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금강정경』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장애란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며, 탐애와 바람은 중생 심행(마음작용)을 어지럽힌다.”라고 하였다. 또한 『대일경』에는 “장애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과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 등이 있다면 비록 행복을 구하나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행복에 집착하여, 행복을 구하는 모든 중생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대의 잘못은 크게 용서할 때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부)들의 기분이 우울하고 좋지 않을 때 그릇이 더 많이 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그릇 하나를 깨고 기분이 풀리고 좋아진다면 행복의 좋은 방편이리라. 자, 이제 행복을 위해서 접시를 깨어보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누릴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다툼이 없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세계가 부처님 세상이 되고 중생이 진정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총만할 때보다는 조금은 부족할 때가 더 여유롭고 행복할 때가 아닐까. 예부터 지혜 있는 사람은 영화가 지나치면 화가 뒀을 알고 스스로 근신하고 삼갔으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피할 줄도 알았으니, 행복을 누리고 지킬 줄 알았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인간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분수를 지키며 항상 공덕 쌓을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올바른 서원을 세워서 살고, 부모를 잘 섬기고, 처자를 사랑하여 아끼고 보호하며, 올바른 생업에 힘쓰고, 항상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살고, 친족을 인정으로 돕고 베풀며, 비난받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며,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생각할 줄 알며, 때때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청정한 행을 닦으며, 네 가지 성스러



운 진리를 깨달아서 마침내 열반에 이를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인간의 행복은 없다 하시고, 그때에는 칭찬과 비방, 상과 벌에 흔들리지 않고 얻음과 얻지 못함에 의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며, 근심도 없고 성냄 일도 없어서 위없는 평안함 속에 있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인간의 행복은 없다.”고 하셨다. - 『대길상경』

우리 인간이 짓는 나쁜 행실과 악한 업은 새로 짠 우유처럼 곧 변하지는 않지만, 재로 덮여 보이지 않는 불씨처럼 속에서 타면서 어리석은 중생을 불태운다. 사람이 죄업을 지었으면 곧 참회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스스로 해야 한다. 마땅히 버릴 것은 버릴 줄 알고, 마땅히 짓지 말아야 할 것은 짓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인간사 못 고통과 괴로움이 나쁜 행실과 악한 업의 쌓임에서 오는 것이니 스스로 악업을 짓고, 행복을 구하는 중생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

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얻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으로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재앙이 있다면 행복을 구한다고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는가. 반면 자신이 짓는 선업은 작은 것이라도 쌓이고 쌓여서 복이 되는 것이다. 복은 내 마음 위에 쌓이게 되는 것이니 하는 짓마다 삼업이 모두 복이 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다시 부처님 말씀 들어보자.

“항상 진리에 맞는 삶을 살며 최상의 삼업 행을 하고,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며, 좋은 일은 남보다 먼저 하고,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아끼며 형편 따라 남을 돕고, 죄짓는 일과는 결별하고, 세상 살이 부딪히고 뒤섞일 때조차도 마음을 흔들지 않고 조금씩 생각하지 않으며, 이렇

게 곳곳이 사는 사람, 그는 모든 곳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 안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 『숫타니파타』

중생은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마음이 급해지고 행이 급해진다. 지금은 좋은 마음의 여유와 자비와 용서가 필요하다. 내가 용서할 때 평화와 행복이 더욱 크게 되는 것이니 작은 선이라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행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 내 마음 위에 쌓이게 되고 쌓인 복은 커다란 세력이 되어서 재난과 재앙을 막아 주게 된다.

하루에 짓는 선한 일이 당장에 큰 복을 이루지는 못한다 해도 하루에 재난을 막아 주면, 이것도 행복이리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금생의 행복은 불법을 만나고 믿음이 있으며 육행을 실천하며 사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불로 가는 길이며 자기완성으로 가는 하나뿐인 길이기 때문이다.

총지사 교도 광고

혈액투석 · 줄기세포 · 암면역치료 · 자가진피주름재생술



연세숲내과

Yonsei Forest Clinic

원장 김 채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17 제이메디컬빌딩 5층

Tel. 02-496-0779 Fax. 02-496-0778

“대천세계 우렁찬 소리 울리고 시방세계 뻗어갈 우리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36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창종은 선포하였으나 종단의 형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니었다. 현교의 전통사찰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특별히 관리되었음에도 관리의 미비함 때문에 비구·대처의 분쟁 속에 유실되는 일이 잦았다. 뿐만 아니라 개종 초기 희소한 재산을 두고 겪었던 우여곡절도 있었다. 대성사는 종단 재산은 반드시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누가 보아도 투명해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한 개인에 의한 사유화나 유용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치밀하게 규정을 만들었다. 오랜 공직의 경험에 비추어 세월이 흘러도 공정하도록 기틀을 만든 것이다.

당시 정부에 종단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종단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재단의 설립과 등록이다. 대성사는 1973년 10월 17일 재단법인 불교총지종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종단 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다. 종단이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성사와 교도들이 노력을 기울인 일이었다.

1973년 12월 12일 서울시에 종단 등록과 재단 허가 신청을 함께 냈으나 종단 등록은 반려됐다. 이듬해 5월 30일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로부터 재단법인 불교총지종 설립 허가를 받게 된다. 이로써 대성사는 현대 밀교 부흥을 위한 숙원 하나를 해결한 셈이다.

6월 12일 대성사는 주석하던 성북선교부에 ‘불교총지종’ 현판을 걸었다. 천 년의 세월



을 넘어 이 땅에 정통 밀교가 다시 꽃을 피우는 공식적인 순간이었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전국의 교도들은 곳곳에서 서원당을 열고 밀교의 가르침을 전했다. 현재 총지종의 주요 서원당은 대부분 그 무렵에 설립된 곳이다. 그만큼 대성사에 대한 믿음과 밀교 수행에 대한 목마름이 컸던 것이다. 대성사는 포교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식견을 드러냈다. 음악을 통한 포교에도 시대를 앞선 행보를 보였다.

당시 만든 ‘창교가’ 가사를 보면 대성사가 교단을 세운 뜻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중생을 건지겠다는 원력이 시방세계 빛으로 뻗어가고, 사명으로 뭉친 교도들은 금강같이 굳은 신심으로 즉신성불의 길을 영원히 전하는 내용에서 당시 대성사와 교도들의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 있다.

삼계의 중생들을 모두 건지고 찬란한 거룩한 빛 날리 비추며
대천세계 우렁찬 소리 울리고 시방세계 뻗어갈 우리 총지종
법계의 사명으로 여기 모여서 금강같이 뭉쳐서 일어난 교단
즉신성불 대도를 널리 열어서 영겁으로 이 어갈 우리 총지종

대성사는 불교의식에 찬불가를 적극 활용했다. 예불가 ‘오대서원’과 ‘회향서원’을 직접 작사하여 공식 불공과 의식에 도입했다. 그 밖에도 ‘네 가지 큰 은혜’, ‘성도절 노래’, ‘창교절 노래’ 등 16곡의 찬불가를 직접 작사하였고, 이 가운데 6곡을 완성했다. 워낙 문체가 유려하고 계승을 읽기 쉽게 설해는 대성사는 노랫말을 만드는 데도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 가사뿐 아니라 기본적인 곡조를 작곡하고 전문 작곡가에게 편곡을 의뢰하여 총지종의 교의를 담은 아름다운 찬불가를 보급했다. 찬불가를 불공의식에 공식 도입함으로써 현대적인 불교의식을 정착시킨 것이다.

대성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1975년부터 각 사원에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자성학교를 개설했다. 승천사, 수인사, 정각사, 국광사, 성화사에 어린이 법회가 열렸다. 자성일 법회에 참여한 부모를 따라온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놀이방과 공부방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담 교사와 봉사자를 배치하여 놀이와 학습을 통한 인성교육 및 불교교육의 장을 펼쳤다. 전국 사원에 어린이 법회와 중·고등학생회 법회가 개설되면서 종단은 활력이 넘쳤다. 종단의 미래 인재가 곳곳에서 움을 트고 있었다.

대성사가 공을 들인 또 다른 불사가 있었



1973년 5월 1일 서울선교부에서 성북선교부로 설단 이설 불사를 병행하고 최초로 불교총지종의 현판을 내걸었다.

대성사는 1974년 9월 예불가 ‘오대서원’과 ‘회향서원’을 직접 작사하여 공식 불공과 의식에 도입하고 합창단을 만들었다.

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호국가불사이다. 종단의 기틀이 탄탄해진 1970년대 중반은 냉전시대의 위기감이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 남과 북의 긴장뿐 아니라 동서 진영의 경쟁과 대립은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고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정도로 긴박했다. 신라의 명량 법사가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문두루 비법을 행한 것처럼 밀교행자들은 언제나 국토와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왔다. 1975년 대성사는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을 근거로 삼고 진호국가불사 의례를 정립했다. 특히 베트남 패망으로 위기감이 높아졌을 때 5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접 정진하여 본을 보였다. 국가의 발전이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밀교 수행과 국가의 안녕, 국민의 안락이 일치함을 범문으로 남겼다.

“법신불은 본래 있어
보리심(菩提心)에 비유하고
화신(化身)불은 닦아 나니
보리행에 비유한다.
법신불이 중생 위해
당신이 곧 화신이니
법신부처 이밖에는
다시 부처 없는지라
법신불은 태양 같고
화신불은 만월 같다.

그러므로 범신명호 비로자나 대일(大日)이라.
밀교 본신 양인 고로
현세정화(現世淨化) 위주하며
밀교 본신 양을 쓰고
일요자성 날을 한다.
현세안락 서원하여
이 땅 정토(淨土) 만드므로
진호국가(鎮護國家) 서원으로
자기성불 하기 위해
식재증의(息災增益) 경애항복(敬愛降服)
사종법(四種法)을 수행하니
국민 모두 안락하고
국토 모두 성불된다.
이것이 곧 오는 세상
몇천 겁을 기다려서
성불함이 아니므로
즉신성불(即身成佛)이라 한다.”

진호국가불사를 거행하고 모든 불사를 양력으로 진행할 뜻을 밝힌 것이다. 국가공휴일로 제정된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고 모든 불사를 양력 기준으로 시행했다.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이 태양을 상징한다는 교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대인의 변화된 생활양식에 맞춰 현대적인 종단 운영에 그 취지를 더했다. 음력 위주였던 불교계의 오랜 관행을 거침없이 깬 셈이다.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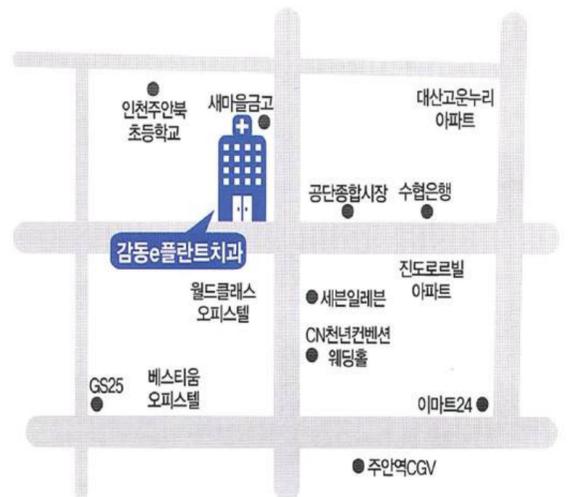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총지종보’ 1995년 창간...문서 교화 중단 없는 300호 맞이

총지종의 역사

제3부 건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1995년~2010년)
03. <총지종보>와 <위드 다르마>의 창간



내실 있는 종단 발전을 위해 창종 당시부터 계획했던 종단 신문은 전당 건설과 일선 교화사업에 밀려 체제되어 오다 드디어 1995년 10월 16일 창간했다.

총지종의 이념과 종단 및 사원의 활동상을 공유할 <총지종보>는 종령 범어를 비롯한 스승의 법문, 종단 주요 소식, 불교 교리, 경전 말씀, 스승과 교도의 교화 경험담과 신행담, 사원과 신정회 활동 등을 게재하고 종단 밖 불교계 주요 소식을 함께 실어 불자로서 안목을 넓혔다.

무엇보다 종단과 사원 및 교도 간 소통과 교류 역할을 맡아 일상불란한 포교와 사업 추진의 주요 매개체가 되었다. 발간 초기에는 8면 격월간으로 발간하였고 2001년 1월부터 월간으로 전환했으며 2004년 8월부터 12면으로 증면하여 종단과 불교계 소식을 아우르는 종합신문으로 자리 잡았다. 교도의 불교적, 밀교적 소양을 증진하고자 전국 사

원에 무료로 배포하고 군법당, 교도소 등으로 배부처를 넓혔다.

2011년 한국불교기자협회에 정식 회원사로 가입하여 불교계 중견 언론사로 발돋움했으며, 종단에 국한하지 않고 불교계 언론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로 2020년 제호를 <총지신문>으로 변경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문서포교는 <월간 총지법문> 창간으로 이어졌다. 2001년 1월부터 매월 총지종의 밀교 사상과 수행의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종단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실었다. 법장원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법문자료와 교화 방편, 다양한 설법 문안, 경전 자료 등을 게재하여 교화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2003년 10월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책자 <위드 다르마>를 발간했다. 총지사 범등 정사의 주관으로 통리원 교무, 동해중학교 불교반의 교사와 학생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후 종단의 스승과 교도뿐 아니라 불교계 안팎의 유명 인사와 전문가의 기고를 실어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고품격 불교 전문 교양지로 성장했다.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위드 다르마>는 매월 사원의 교도는 물론 전국의 사찰, 병원, 군법당, 교도소, 학교 등에 배포하여 불법의 진리와 총지종의 가치를 전하는 중요한 포교 매체로 발전했다.

2005년 11월 총지종보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단 신문의 질적 향상과 교도의 적극



1995년 10월 24일 제46회 추계강공 개강식 및 총지종보 창간기념법회

적인 참여를 도모했다. 각 사원의 교도로 구성된 총지종보편집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매월 신문 내용을 점검하고 각종 아이디어를 모아 보다 신선하고 다양한 기획 방향을 협의했다.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2007년 12월 총지종보 전국통신원을 발족했다.

각 사원의 교도와 교무로 참여폭을 확대하고 전국의 사원을 순례하며 스승과 교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통신원의 적극적인 취재와 생생한 정보 제공으로 교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하고 종보의 내실과 발전을 기했다. 매년 상·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여 통신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종단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를 함께 거뒀다.

<위드 다르마> 역시 자체적으로 자비신행회를 조직하여 전방 군부대와 교도소, 기타 오지와 소외지역에 잡지를 배포하는 등 종단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다양한 신행 활동으로 회원 간 유대를 공고히 하고 명절마다 이웃돕기 행사를 펼치는 등 잡지를 매개로 교화 활동을 펼쳤다.

<총지신문> 창간 특정 종령 범어

바르고 아름답고 맑은 소리를 전하는 진리의 장

법신불이 설하시는 비밀하고 요묘한 세계를 하찮은 인간의 언어로 어찌 감히 읊조리겠는가 마는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은 그나마 그 하찮은 말마디에 의지하여 진리를 더듬어 나가니 말이란 없어서는 또 아니 되는 것이다. 이제 <총지종보>가 발간되어 법을 전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겠다 하니 더없는 기쁨이로되 걱정이 앞서도다. 세상의 저 거짓으로 가득 찬 먹물의 잔치에 물이라도 들면 어찌할거나. 부디 우리 <총지종보>는 바르고 아름답고 맑은 소리만 전할지이다. 그리하여 갈애에 허덕이는 중생에게는 시원한 감로가 되고 미망에 헤매이는 중생에게는 빛이 되거라.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종소리가 되고 웃음을 꽃피우는 연화가 되거라.

이후 2016년 종단출판물감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지종보>와 <위드 다르마>를 비롯한 경전과 불사범요, 종단 홍보물 전반을 검토·관리했다. 편집 방향을 협의하고 집필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총지종보 전국통신원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총지종보> 발전 방향과 기사 작성 및 사진 촬영 등의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

불	교	총	지	종	무	아	지	경
통	지	부	작	용	국	지	순	
생	신	세	지	고	지	순		
철	문	진	철	물	국			
면		신	라	면	정	역		
조	삼	모	사	피	사	체	지	
고	리	분			불	국	사	
초		부	연	설	명	지		
한	려	수	도	구				
강		량	소	년	이	온	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아암혜장과 귀류논증의 견해

가끔 논문이나 학회에 등장하는 '선밀쌍수(禪密雙修)'의 화제는 밀교 전공자로서 아예 논란이 없는 것보다는 반가운 일이다. 여러 논객의 논쟁에서 언뜻 "조선시대 선밀쌍수가 아니라 '선주밀종(禪主密從)'이라 말해야 옳다"는 말도 들었다. 즉,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불교는 선(禪)이 중심이고 밀교는 그 주변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전 신라와 고려시대 불교를 살펴보면 신라말 선이 들어온 이래 '밀주선종(密主禪從)'이라는 말은 확실히 가능하다. 그러나 선(禪)의 범위를 살펴보면 초기불교의 수식관·사념처로부터 시작해 37도도품과 대승불교 유가유식에 이르는 것이어서, 논쟁 이전에 선의 범위를 두고 견해를 좁혀야 겨우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선교일치(禪教一致)'와 같은 말을 쓸 때면 간화선이나 더 좁으면 임제선을 가리키는 것이라 해야 맞다. 의상(義相) 대사께서 남기신 <법성계(法性偈)>에는 다르니라는 말이 나온다. 다르니는 불교 이론을 심지(心地)에 새기는 문사수혜(聞思修慧)의 유가행 가운데 하나이다. 때문에 다르니는 기억을 의미하는 총지(總持)라 번역하며, 다르니도 넓은 의미에서는 선(禪)에 속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다르니는 진언과 함께 밀교에 속한다. 요약하면 선밀쌍수라는 말의 기원은 높이 거슬러 올라가면 의상 대사의 <법성계>에서 이미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론을 논하면 선밀쌍수의 경우 '선주밀종'보다 더 유용한 말은 '선체밀용(禪體密用)'이다. 즉, '선은 체(體)이고 밀은 용(用)'이라는 말이다. 선사들의 견성오도의 경지에서 세간에 인격을 보일라치면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진언이나 다르니만큼 유용한 것도 없으며 그 역사는 무척이나 오래되었다.

한편, 불신론(佛身論)으로 따지면 견성오도는 열반법신에 계합하여 문자나 그림의 터럭을 용납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법신에 따라다니는 보신과 화신은 어찌할 것인가? 견해가 옹졸하면 선문의 입장에서



조선 후기의 승려 아암혜장의 작품 '일간사탑(一開四榻)-무진여화(無塵如畫)'. 조선 전래의 글씨를 바탕으로 중국 서풍을 자기식으로 소화해 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동예현 소장. 출처 <https://www.seoul.co.kr/news/life/2004/10/01/200410011026002>

장엄한 화장세계의 노사나불과 석가모니 불의 두타행도 부답스러울 것이다. 선사들은 체용(體用)의 순역(順逆)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 세간해에 순응해야 중생을 구제하고 보현행원의 원력도 길을 찾을 것이다. 선이 아닌 밀교의 경우 '선밀쌍수' 화두의 단서는 불신과 귀류논증의 중도이다.

밀교의 유가행은 오지오불을 말하는데 오지로서는 법계체성지·대원경지·평등성지·묘관찰지·성소작지이며, 오불로서는 비로자나불·아축불·보생불·아미타불·불공성취불이다. 체용론으로 말하면 체는 비로자나불이고, 상은 아축불로부터 아미타불이고, 용은 불공성취불이다. 오불 가운데 체상용(體相用), 삼대(三大)를 구축하는 것이다. 오지오불에 무수한 현상계를 두고 적멸 오도의 경지를 따로 구한다면 그것은 한참 길을 벗어난 것이다. 붓다가 설하신 것으로 그 중심은 연기의 도리에 있다는 말은 무수히 들었을 것이다.

연기이기 때문에 불멸의 고유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작된 것은 부정하기에 연기를 깨닫는 자는 구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무상한 현상계가 진리 법신이라 말하지만, 진리 법신이란 언명(言名)마저 세울 수도 없고 불성이란 말도 다 거짓이다. 진리라는 언명을 가정하는 것은 자립논증의 방식이지만 언명마저 부정해야 귀류논

증의 참된 이치이며 이것이 중도의 참된 풍도이다. 개인적으로 흠모하는 조선시대 선객으로 오래전 소개한 아암혜장(兒庵惠藏, 1772~1811) 선사가 있다. <아암유집>을 보면 선사야말로 선법에 소통하는 지극한 경지를 보여 주는 선철(禪哲)이다. <아암유집> 권2에 있는 <두륜산만일암중건상량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대들보 위쪽에는/술한 별들 찬란하고
단아한 광명을 토하니/티끌 품은 바람 시원하네./대들보 아래에는/붉은 샘 깊고/인간계 흘러내려/비옥한 들 적시네"

체용이 구축하고 자수용신과 타수용신의 지극한 도리가 완연하지 않음이 없다. 같은 책 <대둔사비각다례축문>에 아암 선사는, "사명 대사에 이르러 삭발에 수업을 남겨 장부의 표상을 버리지 않고 위태함을 지고 험지를 다녀 보살의 풍도를 전하였다"(ABC, H0243 v10, p.697b24)라고 하였다. <화악대사비명>에는 월저(月漈, 1638~1715) 선사가 화악 선사를 가리켜, "내가 남쪽 지방에 갔다가 육신보살을 친견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아암 선사가 남긴 글은 임제풍이 완연한 시대 보현행원 서원이 활발했던 선사들을 무수히 인용하였다. 이를 보면 조선시대 어찌 대승불교가 기울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소의 경전에 원정 대성사 교판사상 내재

- I. 서언
- II. 행장과 창종 이념
 - 1. 행장의 요약과 활동기 구분
 - 2. 창종 배경과 이념
- III. 밀교사관과 교판사상
 -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 2. 역사관과 준제진언
- IV. 원정사상의 계승과 과제
 - 1. 밀교사관의 계승과 발전
 - 2. 자주정신과 의궤 전승
- V. 결어

견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소승경전이라고 하는 『아함경』이나 파리어 성전 중에도 대승, 내지 밀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일례가 될 것이다. - 『종조법설집』 p.22.

위의 인용에서 불교를 소승, 대승, 밀교로 나누는 방식은 대승불교를 바라밀문과 진언문으로 구분하는 인도·티베트불교의 전통과 다르다. 밀교는 최초 진언문으로 불리다가 진언도(眞言道), 진언승(眞言乘)으로 불렸고, 동아시아에서는 밀교, 혹은 밀승(密乘), 밀종(密宗) 등의 용어로 불렸다. 원정의 불교 구분은 밀교가 생소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 붓다의 근본교설로부터 불교사 전체를 결집하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대목이다. 원정의 가르침은 석존의 근본교설에 대해 정각자 설법의 전체성을 지적한 것이며, 후기 밀교 시대에 이루어진 라홀라의 가르침은 법맥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한 의례적 전통이다.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1) 불교사와 밀교경전
현재 한국불교 총지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은 『대일경』과 『금강정경』, 『대승장엄보왕경』, 그리고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이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은 준제진언 의궤의 전거로서 소의전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소의경전은 총지종의 창종 정신과 밀교종단으로서 차별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원정의 불교사에 대한 인식과 교판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소의경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승장엄보왕경』으로, 이 경전을 육자진언과 준제진언의 전거로서 주요 시켰을 뿐 아니라 양 진언에 대해 인도·티베트와 동아시아, 한국을 연계하는 공간과 시간적으로 인간 세상을 초월하는 범우주적인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는 전거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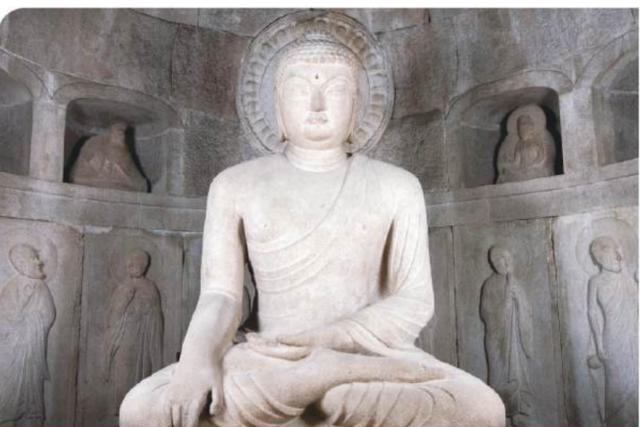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은 원정의 다음 법설과도 맞물려 있다.

불교를 대별하여 소승, 대승, 밀교의 셋을 들 수 있고, 석가모니불의 교설에서부터 시대에 따라 점차 발달하여 왔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 실은 불타 자신의 교설 중에는 이 모든 것이 최초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부분별로 중점을 두어서 전해 왔으므로 어떠한 계통은 소승, 어떠한 계통은 대승, 어떠한 계통은 밀교라는 등 상이한 경향이 평행하여 발

인도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석존의 가르침에 의지한 대승경전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게 된다. 밀교경전의 경우 교주를 역사적 인물인 석존에서 벗어나 법신불을 비롯한 다양한 본존이 등장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대승경전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대승경전은 확실히 불전문학의 산물이며 가탁과 허구를 가지고 있다. 대승경전은 현교의 경우 석존의 설법에 가탁해 대승의 진리를 드러낸다.

인도·티베트의 불교교단에서 더 중요시하는 것은 대승경전에 대해 그것이 불교의 진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그 때문에 대승불교 시대에 이루어진 경전의 존재는 종교적 평가이자 학문적 평가이며, 문헌과 증거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평가와는 다르다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인도·티베트 불교 교단은 대승경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으며 위경(偽經)과 가탁(假託)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 정성준 박사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바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바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펼쳐 읽고,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

마음이 으뜸 되어 모든 일을 이루니

경전 말씀과 불교의 가르침 중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쉬운, 그렇지만 깊은 성찰과 여운을 주는 222개의 가르침을 가려뽑고 간단한 단상을 덧붙였다.

이 책은 온갖 욕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청량제 같은 가르침들은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화령 지음/사륙판/232쪽/값 12,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제6차 세계불교포럼 참석 72개국 불교지도자 “불교 우호 교류 및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하자”



제6차 세계불교 포럼에 참석한 72개국의 불교 우호 교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불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고 선언했다.

불교계 대표와 학자들은 △불교의 건전한 전승 촉진 △불교 경전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실시 △현대 불교 사상과 실천 연구 △불교 우호 교류 적극 수행 등을 제안했다.

총지종을 비롯한 조계종 등 13개 종단 50여 명의 한국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와 중화종교문화 교류협회(회장: 천리핑) 주관으로 중국 절강성에서 열린 이번 세계불교 포럼은 10월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 ‘동원동행 화합공생’을 주제로 한 9개 분과포럼에 이어 17일 영파시 설두사 미륵성단 만선당에서 열린 폐막식까지 세계불교를 상호 이해와 향후 불교가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진각종 통리원장에 능원 정사 선출 10일부터 임기 시작, 교육원장에 정법 정사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에 능원 정사(서울 행원심인당 주교)가 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는 10월 23일 제443회 정기 종의회 및 유지재단 이사회 합동 회의를 열어 능원 정사를 새 통리원장으로 선출했다. 통리원장 임기는 11월 10일부터 4년간이다.

앞서 능원 정사는 정견 발표에서 “종단 발전을 위해 위의 뜻을 잘 받들고 아래 사정을 잘 살피는 종무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재 양성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법과 제도 등의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종단이 육일승전해 나가는데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능원 정사는 1998년 밀각심인당 교화를 시작으로 제12~15대 종의회 의원, 포항교구청장, 서울교구청장, 현정원 현정위원 등 종단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종립 심인중·고등학교 정교실장, 학교법인 회당학원 사무처장, 위덕대 전법원장,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이사, 진각복지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진선여자중·고등학교 정교실장과 제16대 종의회 의원, 제38대 현정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종의회는 이날 제15대 교육원장에 정법 정사(서울 남부심인당 주교)를 선출했다. 정법 정사는 2001년 장엄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서울교구 종무국장, 교육원 교육국장,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이사, 제13, 14, 15대 종의회 의원 등을 지냈다.

한국밀교학회, 2024 추계 학술대회 성료 대주제 ‘불교와 밀교에서 즉(卽)의 의미’



한국밀교학회(회장: 효명 정사)는 2024년 추계 학술대회를 10월 17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대강당에서 ‘불교와 밀교에서 즉(卽)의 의미’를 대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성제 정사(위덕대 교수)의 ‘밀교에서 즉의 의미 고찰’ 등 총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종단에서는 총무부장 록경 정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서울경인교구 스승과 통리원 교무들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된 개식불공에서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총무부장 록경 정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밀교의 궁극적 목적인 ‘즉신성불’은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초적 질문이자, 이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체계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즉’이 밀교의 핵심 사상을 자연스럽게 함축하고 있다”며 “학술대회를 통해 오늘의 주제가 더욱 깊이 있게 논의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나누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성으로 정진하는 삶

“순경(順境)의 덕은 절제(節制)요, 역경(逆境)의 덕은 강의(剛毅)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1561~1626)의 말이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순경과 역경이 존재한다. 순경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되는 상태이며, 역경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되지 않는 상태다. 순경을 만나면 안심하여 도를 지나치기 쉽고, 역경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져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순경에 처했을 때는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는 자기를 이기는 것이며, 무슨 일에서나 도를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역경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잃어 희망을 상실하기 쉽다. 역경에 처한 자에게는 강의가 필요하다.

강의는 굳셈이다. 즉 느림하고 용기가 있는 것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다. 세상에는 순경만의 인생도 없고, 역경만의 인생도 없다. 인생이란 날씨가 같아서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기 마련이다. 맑을 때는 언젠가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흐릴 때는 언젠가 맑아질 것을 생각하며 그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용감하게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순경에서는 절제하고 역경에서는 굳세어라.”라고 말한 베이컨의 말은 인생의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 사실 이 땅에 크나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또는 오늘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많은 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역경에 대처했다.

“실패는 신념이 시험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역경(逆境)의 시련은 더 큰 노력을 고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성공 철학을 체계화한, 미국의 자기 계발과 성공학의 아이콘인 나폴레옹 힐 박사의 이야기이다. 그는 역경이란 성공에 이르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라고 말했다.

호텔왕 힐튼은 역경을 기회로 삼아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힐튼이 호텔 사업에 뛰어들어 사업이 한창 확장일로에 있을 무렵인 1929년에 세계적 대공황이 엄습해 왔다. 미국 호텔업계는 된서리를 맞았으며, 호텔업자의 85%가 도산했다. 이 무렵 대부분의 호텔업자는 사업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힐튼 역시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남들이 호텔 사업은 사양 사업이라며 싸게 내놓을 때 오히려 호텔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전 재산을 투자하고 빚을 내면서까지 호텔을 매입했다. 1940년경 경기가 좋아지면서 힐튼은 일약 호텔업계 최정상급으로 거듭났으며, 세계 진출의 발판도 이때 마련했다.

세상살이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고, 삶이 어려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쉬운 날도 있기 마련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뜻이 간절하면 언젠가는 성취된다는 점이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다. 간절함은 성공의 씨앗으로, 간절할 마음이 크면 클수록 성취의 결과는 더욱 분명하다는 뜻이다.

또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라 했다. 정신을 한곳에 모으면 안 될 일이 없다. 이 역시 간절한 마음의 소중함을 표현한 말이니,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가 아닐까 한다. 긍정적으로 심기일전하여 지성으로 정진하는 삶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9월 21일 ~ 10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은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김병석	09/22	10,000	관음사	우인	09/23	10,000	국광사	보명심	09/23	10,000	10/10	10,000	관음사	신막심	09/23	30,000	국광사	지명	10/4	10,000	국광사	이순영	10/13	20,000	국광사	공덕성	09/23	20,000	국광사	수증원	09/23	10,000	국광사	밀공정	09/23	10,000	국광사	법지원	09/23	10,000	국광사	일성혜	09/23	10,000	국광사	사홍화	09/23	10,000	국광사	안주화	09/23	10,000	국광사	진일심	09/23	10,000	국광사	시각화	09/23	10,000	국광사	최상관	09/23	10,000	국광사	연등원	09/23	10,000	국광사	자선화	09/23	10,000	국광사	승효제	09/23	10,000	국광사	주신제	09/23	10,000	국광사	총지화	09/23	10,000	국광사	정석만	10/13	10,000
관성사	우인	09/23	10,000	관음사	보명심	09/23	10,000	국광사	신막심	09/23	30,000	국광사	지명	10/4	10,000	국광사	이순영	10/13	20,000	국광사	공덕성	09/23	20,000	국광사	수증원	09/23	10,000	국광사	밀공정	09/23	10,000	국광사	법지원	09/23	10,000	국광사	일성혜	09/23	10,000	국광사	사홍화	09/23	10,000	국광사	안주화	09/23	10,000	국광사	진일심	09/23	10,000	국광사	시각화	09/23	10,000	국광사	최상관	09/23	10,000	국광사	연등원	09/23	10,000	국광사	자선화	09/23	10,000	국광사	승효제	09/23	10,000	국광사	주신제	09/23	10,000	국광사	총지화	09/23	10,000	국광사	정석만	10/13	10,000						
관성사	김병석	09/22	10,000	관음사	신막심	09/23	30,000	국광사	보명심	09/23	10,000	국광사	지명	10/4	10,000	국광사	이순영	10/13	20,000	국광사	공덕성	09/23	20,000	국광사	수증원	09/23	10,000	국광사	밀공정	09/23	10,000	국광사	법지원	09/23	10,000	국광사	일성혜	09/23	10,000	국광사	사홍화	09/23	10,000	국광사	안주화	09/23	10,000	국광사	진일심	09/23	10,000	국광사	시각화	09/23	10,000	국광사	최상관	09/23	10,000	국광사	연등원	09/23	10,000	국광사	자선화	09/23	10,000	국광사	승효제	09/23	10,000	국광사	주신제	09/23	10,000	국광사	총지화	09/23	10,000	국광사	정석만	10/13	10,000						
관성사	우인	09/23	10,000	관음사	신막심	09/23	30,000	국광사	보명심	09/23	10,000	국광사	지명	10/4	10,000	국광사	이순영	10/13	20,000	국광사	공덕성	09/23	20,000	국광사	수증원	09/23	10,000	국광사	밀공정	09/23	10,000	국광사	법지원	09/23	10,000	국광사	일성혜	09/23	10,000	국광사	사홍화	09/23	10,000	국광사	안주화	09/23	10,000	국광사	진일심	09/23	10,000	국광사	시각화	09/23	10,000	국광사	최상관	09/23	10,000	국광사	연등원	09/23	10,000	국광사	자선화	09/23	10,000	국광사	승효제	09/23	10,000	국광사	주신제	09/23	10,000	국광사	총지화	09/23	10,000	국광사	정석만	10/13	10,000						



실새삼의 더부살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탄천과 경안천을 걷고, 한 달에 한 번은 여주의 남한강을 몇 곳 둘러봅니다. 숲 해설을 배운 덕에 서로 어우러져 변화하는 풀과 나무의 모습을 좀 더 눈여겨봅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꽃과 잎의 모습이 달라지고 해에 따라서도 더욱 눈에 많이 띄는 풀과 꽃이 있습니다. 울가울에 유독 두드러져 보이는 풀은, 황금빛 덩굴로 초목 바탕 위에 빛을 뿜는 듯 드문드문 나타나는, 실새삼이라는 이름의 기생식물입니다.

시작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서부터입니다. 싹을 틔운 뒤 덩굴을 뻗어 옆에 있는 식물의 줄기를 붙잡으면, 땅으로 연결된 자기 줄기를 버리고 숙주 식물의 줄기를 감싸

고 그 줄기에 빨판을 꽂아 영양분을 섭취하며 덩굴을 뻗어 성장합니다. 따로 광합성을 하지 않으니 잎은 발달하지 않고, 엽록소도 필요 없어 노란색 줄기만 겹겹이 자라서, 마침내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꽃을 피우고 생각보다는 꽤 큰 열매도 맺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열매를 토사자라 하여 간과 신장을 보하고 남자의 정력을 돋우는 약으로 써 왔다고 합니다. 주로 콩과 식물, 벼과 식물에 기생하는데, 작년에는 쑥대를 휘감은 실새삼이 보이더니 올해는 환상덩굴을 덮고 있는 실새삼의 무리가 자주 눈에 띄입니다. 기생이라는 이름대로 숙주식물의 영양분을 나눠 먹으므로 숙주 식물의 생

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니 농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해충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어울림 속에서 나눔과 행복의 메시지를 발견하려는 감성순해설가로서는 인간 중심적 효용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물 상호 간의 관계성 자체에 눈을 뜨니, 첫째로는 실새삼이 숙주식물의 영양을 대가 없이 빼앗아 먹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동성이 약한 식물들의 위로 넓게 줄기를 뻗어 식물 간의 소통을 위한 통신선 역할을 한다니 나름 바깥을 하는 셈입니다. 둘째로는 숙주식물이 죽으면 기생식물 역시 생존할 수 없으므로 숙주식물이 말라죽을 정도로

는 번성하지 않으며, 숙주식물보다 더 빨리 열매를 맺고 생을 마감한다니, 아주 염치가 없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기생이라는 이름보다는 더부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찌면 생명이 없어 보이는 돌과 흙과 물과 공기까지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무시 이래로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오는 동안 주고받은 영양분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이기심으로 보면 주는 것은 손해요, 받는 것은 이익이겠지만 입양된 아이가 새로운 부모를 의지하는 동안 부모에게는 오히려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보시로 서로에게 진 빚을 갚고, 또 가까이 서로에게 의지하여, 혼자 가 아니어서 더 살만한 세상을 이루는 총지종도가 되어볼 일입니다.

이상주 교도 (자유기고가)



부산 정각사, 중앙절 합동 천도재 봉행 부산 정각사(주교: 범일 정사)는 10월 11일(음력 9월 9일) 중앙절을 맞아 합동 천도재 불공을 정각사 2층 득락전에서 오전 11시부터 봉행했다. 제불보살님과 선망부모 및 일체 인연 영가님들께 감사의 공양을 올리며, 모든 영식들이 삼계의 고해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서 태어나기를 기원했다.



지니어스봉사단과 함께하는 나눔바자회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에서는 10월 19일, "제6회 의릉문화축제" 현장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했다. 석관지니어스봉사단이 준비한 부스에는 다양한 의류와 신발, 아동용품 등이 저렴한 가격에 준비되어 주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이어졌다.



물건·제도·철학

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구체적인 일상의 삶은 좋은 물건으로 보장되고, 구체적인 좋은 물건은 주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제도가 만들며, 좋은 물건과 좋은 제도는 추상적인 좋은 철학이 책임진다."

한 사회 구성원의 시선이 '물건'에만 가 있으면 후진국, '물건'과 '제도'에 가 있으면 중진국, '물건'과 '제도'와 '철학'에 모두 가 있으면 선진국이다."라고 말하였다. 문명의 발달 과정은 물건, 제도, 철학의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에는 물건 수준에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있고, 물건과 제도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더 나아가 물건과 제도, 철학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

면, 우리는 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을 만드는 재료와 음식의 맛에 집착한다. 그러나 이것은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도는 시스템이다.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레시피에 의해 변하지 않는 음식 맛을 제공한다.

철학은 물건과 제도 그 위에 있는 개념이다. 내가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먹고 싶거나, 내가 최고 품질의 식재료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거나, 최고의 한 끼를 만들고자 하거나, 최고의 음식으로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이다.

고명환 작가는 "물건만 바라본다면 천만 원대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제도를 안다면 억대의 수익을 올리며, 철학을 이해한다면 무한대의 수

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물건의 단계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제도는 물건보다 한발 앞선 단계이다. 물건은 내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반면 제도로 나아가면 조금 더 시스템 안에서 제도화된 레시피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넛 회사 노트드의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넛 브랜드 노트드의 브랜드 철학은 나누는 행복에 있습니다. '도넛이 주는 기분 좋고 행복한 경험은 무엇일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 나누고 싶은 마음, 노트드의 철학은 바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물건, 제도, 철학의 원리는 사람의

내적 성장에도 적용된다. 물건이 '나 자신'이라면, 제도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철학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정하고, 그 속에서 지혜로운 결정이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계행과 보시로써 삶의 방식을 확립하고, 수행으로 삶의 가치관과 철학을 확립하여 지혜에 눈을 뜨게 된다.

어릴 때는 여러 물건을 사용하고 물건에 집중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를 이해하고, 중년에 접어들며 자신만의 철학을 세울 수 있게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지혜로 전환해야 한다. 철학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위대함을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진금선 원장, 보육 분야 유공자 표창 종로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원장(사진 가운데)이 2024 서울 보육분야 유공자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진 원장은 10월 말 보육 주간을 맞아 지난달 31일 개최된 '2024 서울 보육인 한마당'에서 보육분야 유공자 54명과 함께 보육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 돌봄에 헌신해온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14일

불교총지중은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자비의 손길로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삶의 바른길을 광명으로 밝혀 주시는 부처님!

이제부터 수험생들이 신명을 다하여 시험에 열중하게 하소서
 흑사라도 자만심과 나태함에 빠져 흔들릴 때는 부처님의 너그러운 겸손과 끊임없는 정진의 힘을 갖게 하소서
 잠시라도 무기력한 마음과 혼란스러움으로 힘들어할 때는 부처님의 광대하신 원력과 샘솟는 지혜를 본받아 지니게 하소서
 조금이라도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흔들릴 때는 부처님의 인욕의 마음과 깊은 선정의 힘으로 이겨 내게 하소서
 잠깐이라도 좌절과 실의에 빠져 힘겨워할 때는 부처님의 금강석과도 같은 용기와 불퇴전의 힘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삼보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고 견디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게 하소서
 수험생들이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원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갖게 하여 그간 쌓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기를 서원합니다.

시험 마지막 시간까지 스승님과 여러 교도들의 동참 원력이 함께하기에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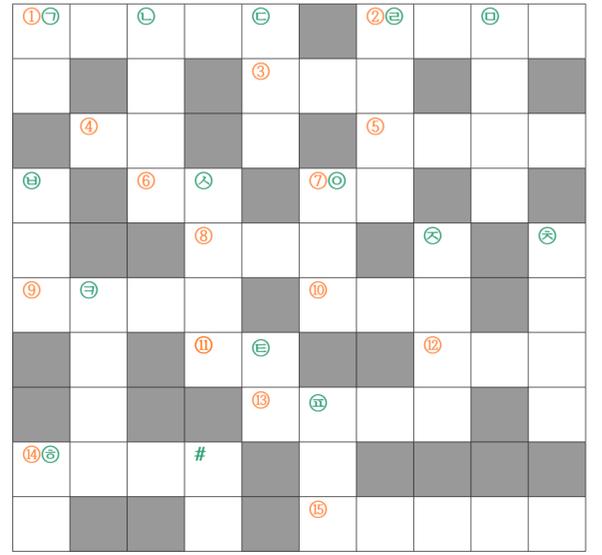


마산 윤천사, 윤비연 영식 49재 봉행 윤천사 주교 정원심 전수 모친이자 해봉 정사빙모 윤비연 영식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49재가 스승들과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25일 윤천사에서 봉행됐다. 10월 3일 7재에 앞서 월초불공으로 인해 6재에 모셨다. 윤비연 보살은 총지종 교도로 일평생 진언염송 수행정진해오다 지난 8월 16일 95세의 일기로 임직에 들었다.



지인사, '가을을 걷다, 그리고 힐링' 지인사(주교: 범우 정사)는 '가을을 걷다, 그리고 힐링'을 주제로 지난달 11일 인천 무의도에서 관불 행사를 가졌다. 이날 주교 범우 정사를 비롯한 교도들은 해상관광 탐방로를 걸으며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와 기암괴석 등 아름다운 장면을 감상하고, 지친 심신을 달래고 불연을 다졌다.

가로세로 총/지/문/답



가로 열쇠

- ①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로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한국 전통 밀교종단
- ② '마음이 어느 한 곳으로 온통 쏠려 자신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경지'라는 뜻
- ③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작용
- ④ 세상에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난 날을 해마다 기념하는 날
- ⑤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순수함
- ⑥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및 병의 발생 상황과 증세 등을 물음
- ⑦ 쇠를 재료로 하여 만든 온갖 물건
- ⑧ '인생을 울리는' 농심 매운 라면
- ⑨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리는 것을 이르는 말
- ⑩ 사진이나 영화 따위를 찍을 때, 그 대상이 되는 물체
- ⑪ 폭이 좁고 긴 끈이나 띠 모양의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⑫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경주의 사찰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다.
- ⑬ 알기 쉽게 더해서 자세히 설명함
- ⑭ 한산도 부근에서부터 충주, 삼천포, 남해 등을 거쳐 전라남도 여수에 이르는 물길
- ⑮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세로 열쇠

- ㉠ 불에 타들어 가는 물체에서 튀는 작은 불덩이
- ㉡ 총지종이 발간하는 신문으로 창간 후 이달에 300호를 맞았다.
- ㉢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이르는 말
- ㉣ '쓸모없는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뜻
- ㉤ 참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몹시 괴롭고 싫다
- ㉥ 머리와 목에는 털이 없으며 이 부분이 빨강, 파랑, 청백색으로 변하는 새
- ㉦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
- ㉧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 ㉨ 정체가 분명하거나 확실하지 아니한 것
- ㉩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
- ㉪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용성 있게 노력함
- ㉫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중심이 되는 조직
- ㉬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
- ㉭ 대한민국의 국가 1급 하천이며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
- #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어 사람이나 사물을 잘 포용하는 품성



윤천사, 동천 살리기 축제 음성공양 윤천사 부림합창단(단장: 조정애)은 동천 축제에 참석해 음성공양을 올렸다. 축제는 동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국가하천으로 만들자는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열렸다. 축제에는 사진전, 장미꽃 생태 체험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시민과 지역 가수가 함께했다.



정각사 이청자 교도 서예 부문 입선

제22회 부산 서예 비엔날레 국제 공모대전에서 정각사 이청자 교도가 서예 부문에서 입선의 영예를 차지했다. 시상식은 개막식과 함께 10월 1일 부산시민공원 백산홀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청자 교도가 본인의 작품인 학명선사의 선시 <夢中遊(몽중유)>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다.

<추계 강공회 보시 고맙습니다>

일성혜, 총지화, 선도원 스승
 신정희 서울경인 박정희 지회장
 신정희 대구경북 윤복자 지회장
 덕화사 신정희, 밀인사 신정희
 성화사 신정희, 자석사 신정희
 윤천사 신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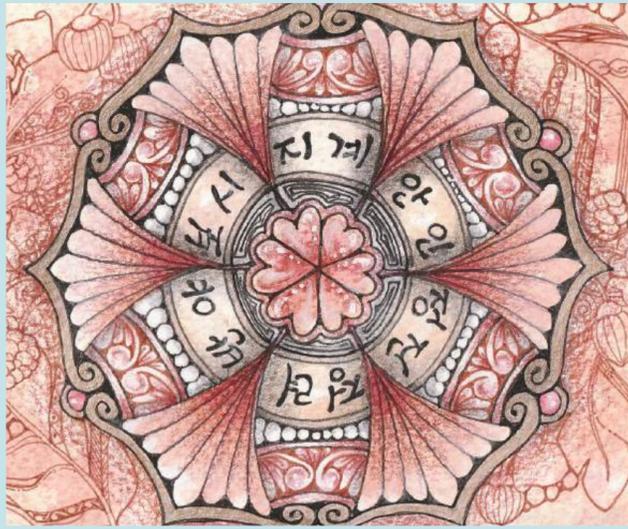
관성사 김병석 각자, 단음사 황월분 보살
 윤천사 무명씨, 총지사 보심관, 신영자 보살

축하합니다

총지사 황보나 작가 득녀(10월 19일)
 (육경 정사, 범수연 전수 외손)

정각사 김태연 교도(조삼순 교도 자부)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서기관(4급) 승진

보현 전수의 총지스케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열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인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가주경,에 의한 진언 '염불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총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견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서울경인교구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2경길36-19 (054)745-5207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벽봉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부산경남교구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삼정동)	(032)528-2742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4길 6 (내이동) (055)354-3387	
충청전라교구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17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교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복골5길 12 (호사동1가)	(063)224-4358	윤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맛과 건강을
정성으로 담았습니다



요리 전문가가 만드는
불교총지종 대표맛 수인사 김치!

2024 수인사 이웃과 자비나눔
겨울나기 김장 김치 & 쉼박지 판매

김장 김치 10kg 7만원 / 5kg 4만원

쉼박지 10kg 5만원

* 택배비 포함, 전국 각지에 12월 1일 배송합니다.
* 판매 수익금은 전액 이웃에 자비나눔으로 쓰여집니다.

김장 날짜 : 12월 1일(일)
신청 마감 : 11월 15일(화)
신청 문의 : 054)247-7613(수인사 주교)
010-7531-3786(박금화 교도)



김장 김치 10kg 7만원 / 5kg 4만원



쉼박지 10kg 5만원



수인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덕산동)